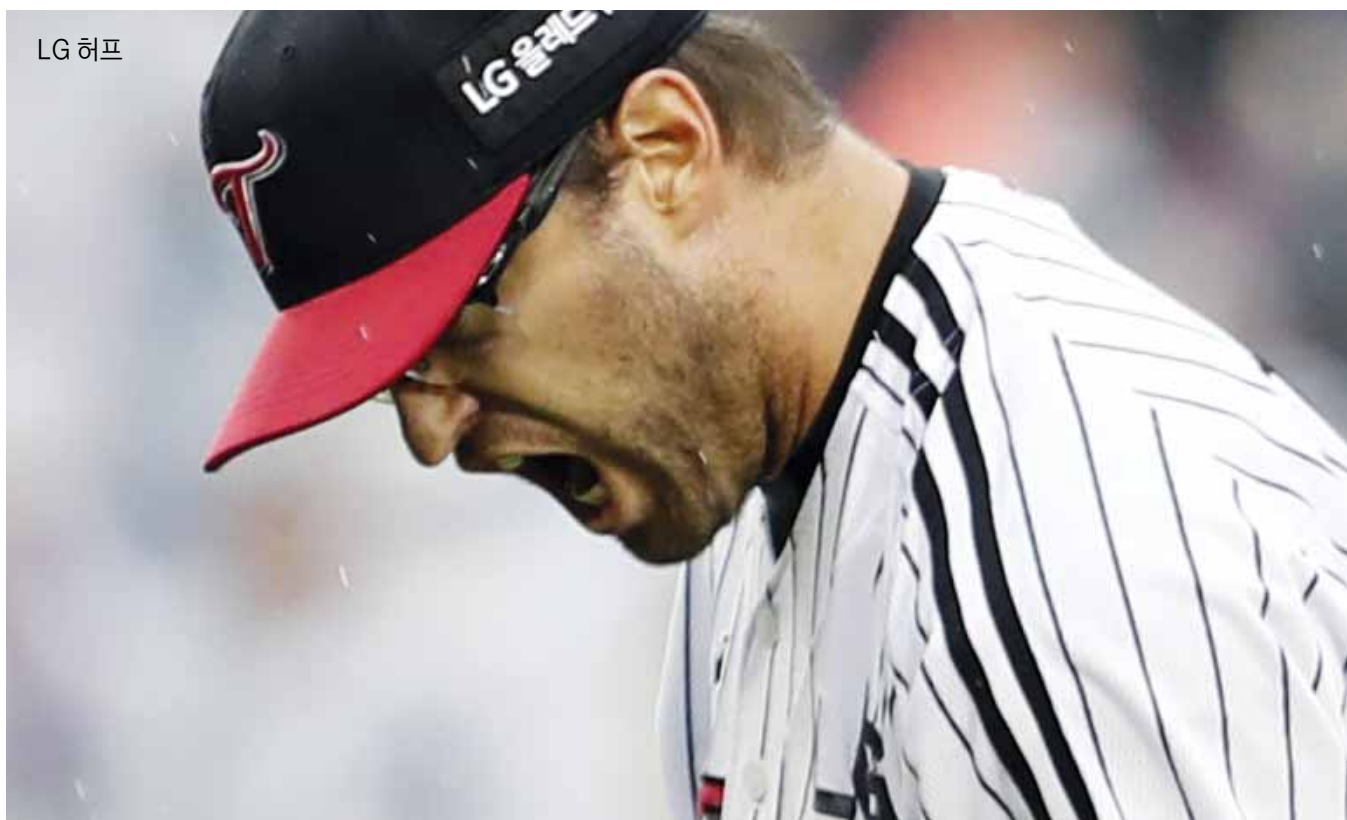


“꼭 잡아주마” 2년만에 리턴매치 “또 올려주마”



NC 해커



LG 허프

NC-LG 21일 플레이오프 1차전

201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

경기 시작: 평일 오후 6시30분, 주말과 공휴일 오후 2시
우천 등으로 경기 가 열리지 못하면 다음 날로顺延



2014 준PO LG 3승1패
시즌 9승1무6패 'NC 우위'
마운드 안정 LG 상승세
NC, 테임즈 부재 등 변수

2016 프로야구 가을전지가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리턴 매치'로 전개된다.
정규시즌 4위에서 출발한 LG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거쳐 준플레이오프까지 통

NC-LG 전력비교

NC다이노스	2016년	LG트윈스
83승 3무 58패	시즌 성적	71승 2무 71패
2위	시즌 순위	4위
0.589	시즌 승률	0.500
0.291	타율	0.290
4.48	평균자책	5.04
9승 1무 6패	상대 전력	6승 1무 9패

과했다. 지난 1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5-4로 승리한 LG는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진출했다. 뜨거운 가을을 보내고 있는 LG는 오는 21일 한국

시리즈 마지막 무대를 놓고 NC와 한치 양보 없는 승부를 벌이게 됐다.
2년 만에 재개되는 두 팀의 '리턴 매치'다.
2014년 정규시즌 4위 LG와 정규 시즌 3위의 NC는 준플레이오프에서 힘겨투기를 했다. 이 대결의 승자는 3승1패의 LG였다. 당시 NC를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LG는 넥센 히어로즈의 벽에 막혀 가을 야구를 마감했다. 하지만 올해는 넥센에 설욕전을 펼치며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 티켓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정규시즌에서는 NC가 9승1무6패의 상대전적으로 LG에 앞서었다. 화끈한 타선과 함께 막강한 불펜진이 NC의 힘이다. NC는 4.49의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정규시즌 우승팀 두산(4.46)에 이어 2위

에 올라 있다. 특히 불펜진의 평균자책점은 4.15로 10개 구단 중 가장 낮다.
박석민을 데한 타선의 파괴력도 막강하다. 하지만 '갑'과 테임즈가 고민이다. NC는 지난 10월9일 kt와 시즌 최종전을 치렀다. 플레이오프에 대비해 연습경기를 치르기도 했지만 실전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시즌 막바지 슬럼프에 빠졌던 나성범의 타격감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건 많았던 올 시즌, 투타의 핵심 이재학과 테임즈도 변수다. 끝까지 않는 승부조작 논란 속에 테임즈도 음주 운전 등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서 플레이오프 1차전에는 나서지 못했다.
최근 분위기는 LG가 앞선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KIA 타이거즈에 일격을 당했지만 2차전에서 극적인 끝내기

승을 거두며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했다. 21일까지 충분한 휴식의 시간도 얻은 만큼 플레이오프 초반 싸움은 LG에 기울다.
시련과 환희의 시즌을 보내면서 마무리로 성장한 임정우가 버티는 불펜의 힘도 NC 못지 않다. 준플레이오프에 출격할 이동현, 임정우, 김지용, 정찬현, 진해수 등 불펜진은 16.2이닝의 자책점을 1점으로 묶었다. 정규시즌 4위 확장과 가을전지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허프도 마운드에 힘을 실어준다.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아쉬움을 삼켜온 NC 김경문 감독과 팬들의 사퇴 논란을 잠재우고 반전의 가을을 보내고 있는 LG 양상문 감독. 어느 사령탑이 두산 베어스를 만나러 갈지 야구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감독들 '추풍낙엽'

10명의 프로야구 감독 중 벌써 4명이 옷을 벗었다.

김용희(SK), 류중일(삼성), 조범현(kt) 감독은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로 성적에 책임을 졌지만, 염경엽(넥센) 감독은 정규시즌 3위를 하고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에는 롯데가 이종운 감독을 경질하고 조원우 감독을 사령탑에 앉히는 것으로 감독직 이동이 정리됐지만, 올해는 4명이나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재 진행형이다.
김용희 감독은 계약이 만료돼 구단이 재계약을 포기한 사례다.
김용희 감독은 부임 첫해인 2015년 정규시즌 5위, 올해 6위를 기록했다. '그라운드의 신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성적 부진 앞에서 인품은 힘이 되지 못했다.
삼성이 류중일 감독과 재계약을 포기한 건 야구계에 충격을 몰고 왔다. 류중일 감독은 2011년 부임 후 6년 동안 한국시리즈 우승 4회·정규시즌 우승 5회를 이끌었지만, 계약 마지막 해인 올해 9위에 머물렀다. 재계약 쪽으로 가닥을 잡



있던 구단은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김한수 타격코치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발표했다.
kt는 초대 감독인 조범현 감독과 작별하는 대신 김진욱 전 두산 감독을 2대 사령탑으로 임명했다.
염경엽 감독의 자진 사퇴는 상황이 다르다. 염 감독은 17일 LG와 준플레이오프 4차전 패배 직후 "4년 동안 우승하지 못해 죄송하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자

진 사퇴를 했지만, 최하위 후보로 거론된 팀을 이끌고 정규시즌 3위까지 차지한 공은 적지 않다.
근본적인 배경은 구단과의 갈등이다. 올해 넥센은 구단 압수수색과 이장석 대표의 검찰 조사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이때 염 감독이 내년 시즌 SK로 옮긴다는 소문이 야구계에 퍼졌고, 사실 여부를 떠나 염 감독과 구단은 더는 한 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문의 당

사자인 SK 구단은 최근 '외국인 감독을 포함해 후보군을 모색한다'고 밝혔으나 최근까지 후보군에 염 감독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염 감독의 사퇴 직후 SK 구단에서 "영입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염 감독은 당분간 현장을 떠나 휴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성과를 남긴 덕분에 타 구단의 러브콜을 받을 전망이다.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도 있다. 김성근(한화) 감독은 계약이 1년 남았지만, 지난 2년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며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내년까지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구단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규시즌 2위 김경문(NC) 감독의 거취도 관심사다. 김경문 감독은 NC를 싹쓸이하며 이끈 지도력을 인정받았지만, 올 시즌 선수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속병을 앓았다.
주요 테임즈의 음주 운전 적발 뒤에는 "시즌이 끝난 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해 여론을 날기기도 했다.
/연합뉴스

축구협회장 "슈틸리케 감독에 힘 실어달라"

이러한 패배 이후 팬들의 비판을 받는 울리 슈틸리케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 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이 신뢰를 재확인했다.
정 회장은 18일 광화문 축구협회에서 열린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브리핑에서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2년간 앞에서 지켜본 결과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축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참 좋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슈틸리케 감독이 이란 월드컵이 끝난 뒤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경기 내용과 결과가 실망스러운 데다가 갑자기 비판을 접하니 신경이 예민해졌던 것 같다"며 "특히 한국과 서양의 표현방식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양은 감독이 경기 끝난 뒤 경기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감독이 사퇴하고 책임지는 문화"라며 "슈틸리케 감독이 경기 상황을 설명

하는 과정에서 핑계를 대고, 선수를 비난하는 것으로 비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회장은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로서 외국인 감독과 일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선 감독에게 팀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기대하지만, 서양에선 감독을 전문가의 역할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회장은 "대표팀 내 선수와 코치, 코치와 코치 간 소통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지금은 많은 대화이 이뤄지고 있다"며 "슈틸리케 감독도 한국과의 문화 차이를 잘 이해한 계기가 됐고, 언론과 팬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말했다.
정 회장은 슈틸리케 감독의 조기 경질 등 임기에 대한 원칙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우즈베키스탄전까지 남은 한 달간 감독과 선수를 위촉시키기보다는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체육회, 김연아 '2016 스포츠영웅' 선정

'피겨 여왕' 김연아(25·사진)가 대한체육회 2016년 스포츠영웅에 선정됐다.
체육회는 18일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정성평가와 국민지도도 정량평가 등을 합산한 결과 김연아가 올해의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체육회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는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일반 국민, 추천단, 체육단체,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선수 및 지도자 41명, 체육발전 공헌자 13명 등 총 54명의 후보를 추천받았다.
이후 2차 심사와 추천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김연아, 박세리, 박찬호, 차범근, 고(故) 김일, 고이길용 등 6명을 선정할 바 있다.
체육회는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내 스포츠발전 공헌도, 국위 선양 공헌도, 사회적 역할 모델로서 상징성, 환경적 제약 극복 등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국민지도도

조사를 추가한 결과 1위에 오른 김연아를 올해의 스포츠영웅에 선정했다.
스포츠영웅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며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한 체육인을 국가적 자산으로 예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고 손기정을 시작으로 고 김성집, 서윤복, 고 민관식, 장창선, 양정모, 박신자, 김운용 등이 스포츠영웅에 선정됐다.
김연아에 대한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11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장애인체전 광주시선수단 결단식
충남 아산동지에서 열린다.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시선수단 결단식이 18일 오후 광주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1층 체육관에서 열려 윤장현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명자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등과 선수단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애인체전은 오는 21일부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